

## L2 학습자들을 위한 ‘-mente’형 부사 등위구조의 형태-통사적 분석

곽재용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13), L2 학습자들을 위한 ‘-mente’형 부사 등위구조의 형태-통사적 분석.

**초록** 스페인어에서는 ‘-mente’형 부사가 복수로 출현하는 등위구조에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에 나타나는 부사만이 접미사 ‘-mente’를 외현적으로 실현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mente’형 부사가 복수로 출현하는 등위구조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접미사 ‘-mente’의 비음성적 실현은 L2 통합화 단계(L2 Integration Stage(cf. Jiang 2000))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형태론적 유형강제 삭제 규칙(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의 적용의 결과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사 파생 접미사의 비음성적 실현 현상은 여러 로망스어들과 17-18세기 및 현대 영어 등 여러 언어에서 관찰이 가능한 현상(cf. Pounder 2006)으로 스페인어의 경우 ‘*alta y correctamente*’와 같은 구조는 형용사 *alta* 와 부사 *correctamente*의 등위구조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부사 즉, *altamente* 와 *correctamente*로 이루어지는 부사 등위구조에 대해 유형강제삭제규칙(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이 [*altamente y correctamente*]처럼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어** 등위구조, 비음성실현, 접미사, ‘-mente’형 부사, 형태론적 유형강제 삭제

##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스페인어의 형용사 파생부사인 소위 '-mente'형 부사가 부사 본연의 성격 중 하나인 명사적 요소와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휘 내부적으로 형용사 여성형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두 개의 '-mente'형 부사가 등위구조에 나타날 경우 선행하는 부사형이 여성형 형용사의 모습을 취하면서 '-mente'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기존의 형태-통사적인 관점을 살펴보고 L2 학습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접근하여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09, 571, 앞으로 NGRALE로 표기)과 Manual de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11, 10, 앞으로 MNGRALE로 표기)(2011)는 소위 '-mente'형 부사에 나타나는 '-mente'를 접미사(sufijo)로 기술하며 이러한 기술 내용은 교육 문법서인 Gómez Torrego(2007, 207)에서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명사인 'mente'가 접미사로 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사적 운용으로 분류되는 등위구조(coordinate structure)에서 '-mente'형 부사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L2 학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통사적 운용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면서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으로 '-mente'형 부사구의 등위구조에서 '-mente'형 부사구의 접미사 '-mente'가 출현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여성형 형용사의 모양으로 표상에 나타나는 이유를 형태적 요소인 '-mente'의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L2 학습자들에게 보다 용이한 형태-통사적 분석 전략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 출현에 대한 형태-통사적 분석

### 1. 부사의 복수출현 등위구조로 보는 견해

Kovacci(1999, 708)는 스페인어의 '-mente'형 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Los adverbios en *-mente* del español se originan en la construcción sintáctica latina, de valor adverbial, formada por *mente*, ablativo del sustantivo femenino *mens, mentis* ‘mente, ánimo, intención’, y un adjetivo concordado antepuesto.

고전 라틴어는 부사는 단일 어휘로 구성된다. 가령 ‘아름다운’의 의미인 스페인어 형용사 *hermoso*는 라틴어의 경우 ‘pulcher’ 그리고 부사 *hermosamente*는 라틴어에서 ‘pulchrē’처럼 단일 형태를 취하여 복합어가 아닌 파생어로 사용되었다. Karlsson(1981)을 인용하는 가운데 Kovacci(1999)는 라틴어가 다양한 접미사로 부사를 형성하는 점을 설명하면서 라틴어에서는 형용사의 중성 대격 어미(tema de acusativos neutros de adjetivo)나 명사 중성 탈격(ablativo neutro de sustantivos)어미인 접미사 ‘-o’를 통해 부사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로망스어, 가령 스페인어의 (*hablar*) *bajo/claro*, 이탈리아어의 *piano, chiaro*, 프랑스어의 *bas, clair* 등의 부사들로 이어졌다고 기술한다. 이후 통속 라틴어 시기 이후에는 *mente*가 오늘날의 *solamente*처럼 사용되지 않고 ‘*sola mente*’처럼 표기상 분리적 구현(split realization)이 이루어지는 것도 관찰된다고 Kovacci는 기술한다. ‘*sola mente*’는 Kovacci의 언급처럼 형용사 *sola*가 *mente*와 일치쳐 보이는 명사에 선행하는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라틴어는 중성 명사도 존재하였으므로 중성 남성 명사의 어미가 존재하지만 현대 스페인어는 중성명사가 없으므로 현대 스페인어의 관점에서 *bajo*나 *claro*는 엄밀한 의미에서 명사적 혹은 형용사적 자질과 관련된 문법적 성(género gramatical)을 결여한 범주임을 알 수 있다.

‘*-mente*’형 부사를 부사화된 명사구로 보는 Bello(1847, § 369), 탈격 부사구(frases adverbiales en ablativo)로 보는 Lenz(1935, §§ 146, 139), 합성어로 보는 Alcina Franch y Blecua(1975, § 4.9.1.1.)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들은 ‘*-mente*’형 부사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최근 NGRALE(2009, 571)와 MNGRALE(2011, 10)는 통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접미사로 기술한다. MNGRALE(2011, 10)은 등위 접속사 ‘*y*’가 사용된 *simple y llanamente*와 같은 연계 등위구조(coordinación copulativa)나 ‘*tan oportuna como elegantemente*’

와 같은 동등비교구조(*comparación de igualdad*)에서 맥락상 사라진 ‘-mente’가 복원된다고 본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El orador habló elegante, correcta y elocuentemente.  
 b. \*El orador habló elegantemente, correctamente y elocuentemente.  
 (Sarmiento 1997, 243)
- 2) a. Directa o indirectamente  
 direct or indirectly  
 ‘directly or indirectly’  
 b. Lo han resuelto tanto técnica como teóricamente  
 it have-3pl solved both technical and theoretically  
 ‘They have solved it both technically and theoretically’  
 (Torner 2005, 117)

Sarmiento(1997, 243)와 Kovacci(1999, 709)는 여러 개의 ‘-mente’형 부사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만이 종결어미를 가진다고 기술한다. 형용사인 *elegante, correcto, elocuente*는 등은 ‘-mente’를 취해 파생부사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cf. Demonte(1999), Egea(1979), Varela(1990)) (1a)에서 *correcta*는 그러나 형용사가 아닌 부사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2a)의 *directa*나 (2b)의 *técnica* 역시 부사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Bello(1847), Hockett(1971), Seco(1972), Bosque(1987), Zagona(1990), Kovacci(1999)등은 이러한 ‘-mente’형 부사를 내심복합어(endocentric compound)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굴절된 형용사(inflected adjective)가 명사 *mente*와 복합어를 이루어 부사가 만들어진다는 견해이다.

- 3) a. [<sub>Adv</sub> [<sub>Adj</sub> Adj-fem][<sub>N-head</sub> *mente*]]  
 b. [<sub>Adv</sub> [<sub>Adj</sub> *directa*][<sub>N-head</sub> Ø]] o [<sub>Adv</sub> [<sub>Adj</sub> *indirecta*][<sub>N-head</sub> *mente*]]  
 (Torner 2005, 118)

Camacho(1999, 2662) 역시 (3b)의 구조가 제시하는 바처럼 다음의 예시들을 분석한다.

- 4) a. Coaliciones [pre- y post-]electorales.  
 b. Coaliciones [pre-Ø] y [post-electorales].

- 5) a. Comomos [maravillosa y estupenda]-mente.  
 b. Comomos [maravillosa-Ø] y [estupenda-mente].

(Camacho 1999, 2662-2663)

Camacho는 (2a,b)와 같은 구조를 형태소의 등위구조가 아니라 단어들의 등위구조로 보았다. Camacho는 (4a)의 경우 형태소가 (5a)는 어근이 등위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분석인데 이러한 분석은 *coaliciones pre-Ø incluso post-electorales*와 같은 예시문도 존재하는 것을 볼 때 형태소 등위구조가 아닌 두 어휘 즉, 부사들의 등위구조로 분석한다.

Bosque(2012) 또한 어휘 완전성 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 Lapointe(1978))이 통사적 과정이 어휘 항목의 형태적 구성소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sup>1)</sup>과 관련하여 (4a)와 (5a)같은 분석이 아닌 (4b)와 (5b)와 같은 분석에 공감한다. Bosque는 Booij(1985), Nespor(1985), Bosque(1987)에 따라 위 (5b)와 같은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나 (4b)와 같은 동일 어간 기준의 접두사 등위구조 역시 모두 등위구조보다는 생략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통사적 도출 구조를 제안하지는 않지만 일견 그 분석적 틀은 설명력은 있다고 본다.

## 2. 형용사의 복수출현 등위구조로 보는 견해

Fábregas(2005, 1.2.2.)는 통사부가 형태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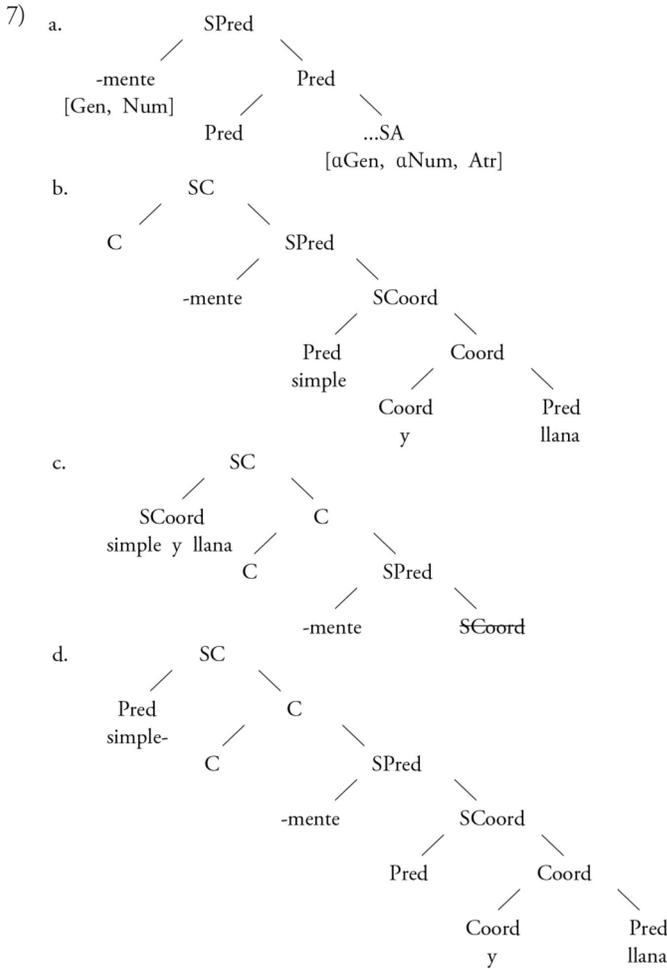
- 1) Bosque(2012, 140-144)에서 “*The Lexical Integrity Hypothesis (LIH) holds that lexical items are syntactic atoms, which implies that neither their segments nor their semantic components are accessible to syntax. LIH is, thus, a double-faced hypothesis, since ...*”라고 밝히듯이 매우 LIH는 매우 광대한 정보를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LIH를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중 아래의 LIH-2에 입각하여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에 접근한다.
- a. LIH-1: Syntactic processes do not have access to the semantic components of lexical items.
  - b. LIH-2: Syntactic processes do not have access to morphological components of (simple) lexical items.
  - c. LIH-3: Syntactic processes do not have access to the components of complex lexical items.

- 6) a. [pro- y anti-] abortistas  
Lit. [pro- and anti-] abortionist
- b. [simple y llana]-mente  
Lit. [simple and easy]-ly
- c. simpl-*ísim*-a-mente  
Lit. simple-SUP-FEM.AGR-ly

(Fábregas 2005, 1.2.2., (12b,c))

Fábregas(2005)는 등위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통사적 작용이며 위의 (6a,b)는 한 단어의 형태적 구성소들의 등위구조(coordination of morphological components of a word)로 설명한다. 그는 (6a)의 경우 두 개의 접두사(prefix)가 등위구조를 이루고 동일 어간(base)의 수식어로 기능한다고 보고, (6b)는 두 어간이 등위구조를 이루며 동일한 접미사가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Fábregas는 어휘주의(Lexicalism)의 주장대로라면 형태부(morphology)가 통사부에 선행한다면, 동사의 굴절은 통사적 과정이므로, 파생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굴절 형태소는 파생형태소의 외부에 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6c)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파생형태소(derivational morpheme, cf Varela(1990))인 ‘-mente’가 두 개의 명백한 굴절 형태소 - 여성 단수 종결 어미(desinence of femine singular) ‘a’와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소(degree morpheme) ‘ísim’ -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은 어휘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Fábregas(2007a: 3)에서도 역시 언급하듯이 \**continu-ment(e)-a*, 즉 [어간-파생형태소-여성종결어미]의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Fábregas(2007a, 2)는 ‘-mente’형과 함께 어울리는 형용사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불어 등에서 모두 여성형 단수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은 단어 내부의 두 구성소 사이에서 일치현상과 같은 통사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어휘완전성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 Lapointe(1978))을 위배한다고 본다. Fábregas(2007a, 14)는 ‘-mente’형 부사의 도출에는 형용사가 참여하여 (7a)와 같은 기본적 구조를 가지며 등위구조는 (7b)와 같은 형상구조를 가지면서 (7c) 또는 (7d)와 같은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Fábregas(2007a)는 기본적으로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는 어휘부로부터 부사가 직접 통사부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7a)와 같이 형용사가 ‘-mente’가 각각 통사부에 삽입되는 견해를 보이면서 (2a,b)와 같은 등위구조는 (6b)의 도식이 (7b)의 도출구조처럼 반영된다. 이는 ‘-mente’형 부사는 문장에 하나만 실현되던 혹은 그 이상 실현이 되건 ‘-mente’형 부사는 기본적으로 (7a)와 같은 도출 구조를 포함하며 나아가 (2a,b)와 같은 등위구조는 부사의 등위구조가 아닌 형용사의 등위구조로 가정함으로써 Camacho(1999)의 분석인 부사의 등위

구조로의 분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7c)의 경우는 현대 스페인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으로 익숙한 구조이지만 (7d)의 경우를 가정하는 Fábregas(2007a)의 견해는 보편적 구조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Bosque(2012, 156)도 언급하듯이 NGRALE(2009, § 7.14f-g)는 중세 스페인어의 경우나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카탈루냐어의 경우 ‘-mente’형이 등위구조 전반부에 나타나기도 한다.<sup>2)</sup>

8) \* simplemente y llana-[Ø]

- 9) a. lenta pero constantemente
- b. \* lentamente pero constante

(Kovacci 1999, 709)

- 10) a. [Lenta-[Ø]] y penosa[mente] (Spanish)  
    slow-FEM and painful-ly  
    ‘Slowly and painfully’
- b. Lenta[ment] i [penosa-[Ø]] (Literary Catalan)  
    slow-ly and painful  
    ‘Slowly and painfully’

(Bosque 2012, 156)

생략(ellipsis)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략 자체가 통사적 운용이므로 형태론적 특성을 갖는 접미사는 통사적 운용인 생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Zagana(1990)도 물론이지만 Bosque(1987, 2012) 역시 ‘-mente’형 부사를 복

---

2) Pounder(2006, 197)는 부사등위 구조에서 선행하는 부사에서 ‘-mente’가 실현되고 후행하는 부사에서 실현되지 않는 현상이 다른 언어들에서도 관찰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hile the cross-linguistically preferred direction in paradigmatic selection of a zero form and morphological brachylogy is full or suffixed form in the final conjunct, zero or stem form in the initial conjunct(s), this is not the only possibility, as we have seen in English asymmetric adverbial coordination (cf. Section 3.3). Similarly in Provençal/Modern Catalan, we find that the standard direction is right-to-left (30), the reverse of Spanish; here, one assumes, the category is established in the first conjunct and a marking on the second conjunct is considered superfluous.

(30) francamen e corteza  
    frank-adv and courteous-  
    ‘frankly and courteously’ (Migliorini 1952, 375)

합어로 간주하기 때문에 Fábregas(2007a)의 분석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Torner(2005)는 ‘-mente’를 구접미사(phrasal affix)로 정의하여 생략 없이 복합어를 형성하는 요소로 분석한다.

11) [<sub>Adv</sub> [<sub>Adj</sub> directa o indirecta] -mente ]

(Torner 2005, 132)

Torner(2005, 126)는 구접미사는 일종의 통사적으로도 형태-음성적으로 독립적 단위가 아닌 의존형태소이며 고정된 위치에 나타나고 일반 구(phrase)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음운적 모습은 어근에 영향을 받는다는 조건을 부여한다. 즉 이는 ‘-mente’형 부사가 여성형 형용사를 취하는 이유로 부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결국 Torner(2005)의 구접미사에 대한 기술적인 정의(technical definition)의 범위에 대한 고려여부를 떠나 ‘-mente’를 의존형태소로 보아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를 결국 형용사 여성형 등위구조에 의존형태소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태-통사적 분석은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를 부사 어휘의 등위구조로 가정하여 복수의 부사가 통사부에 출현하여 ‘-mente’의 생략현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하나의 ‘-mente’가 통사부에 출현하는 조건에서 복수의 형용사가 등위구조에 출현하여 부사의 등위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분석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두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장에서는 L2 학습자들이 이러한 두 분석 중 어느 분석에 보다 쉽게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안적 교수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I. L2 학습자들을 위한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에 대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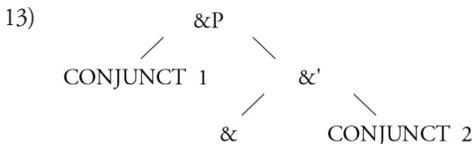
#### 1. 각 등위구조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한 형태-통사적 설명의 한계

García-Page(1991)는 비교나 등위구조가 두 개나 그 이상의 ‘-mente’형 부사를 포함하는 경우 열거된 부사들의 마지막을 제외하고 모두 ‘-mente’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한다.

- 12) a. lisa y llanamente;  
 b. inesperada, pero oportunamente  
 c. más política que económicamente  
 d. tanto social como geográficamente  
 e. no sólo lingüística sino también extralingüísticamente  
 f. dulce o amablemente  
 g. La golondrina vuela rápida, muy rápidame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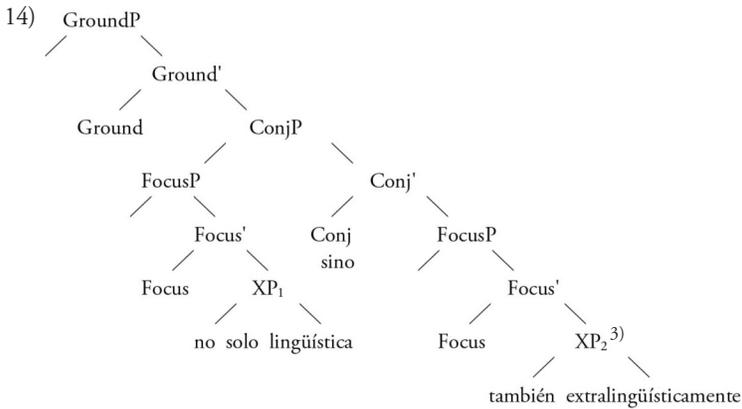
(12a)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온 등위접속구조이며 (12b)는 Vicente (2010, 382)의 기대에 반하는 의미를 갖는 ‘*but*’(counterexpectational ‘*but*’: 앞으로 ‘CE-*but*’으로 표기), (12c)는 우등비교구조, (12d)는 Sáez(1999, 1178)가 언급하는 비양화적 성격으로 접속사 *y*로 다시 쓰기(por ejemplo: *social y geográficamente*)를 할 수 있는 동등비교 등위구조(cf. Bresnan(1973)), (12e)는 Bianchi & Zamparelli(2001)와 Gallego(2005)가 언급하는 인접성 측면에서 다소 자유로운 등위구조, (12f)는 Camacho(1999, 2683)도 언급하는 이접 접속사 등위구조이며 마지막으로 (12g)는 접속사 *pero*를 사용하여 화용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갖는 유형반복구문이다. (12)의 모든 예문들은 각 해당하는 접속사 앞에 사용된 어휘가 모두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

(3b), (7a-d), (11)들이 접속사 ‘*y*’와 ‘*o*’와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이라면 (12)의 다른 현상들은 또 다른 구조로 설명이 요구될 것이다. Sag et al.(1985), Bianchi & Zamparelli(2004)가 (12b)와 같은 ‘*but*’이 절을 등위구조화 한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 Vicente(2010, 385)는 다소 수정적 성격으로 논의를 확장하면서 ‘CE-*but*’은 생략이 없이 DP, 형용사, 동사구 및 절 까지도 모두 반의등위구조(adversative coordination)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Vicente 2010, 386)

Vicente(2010, 386)는 위의 &P의 핵인 &의 위치에 (12a)의 ‘y’, (12b)의 ‘CE-but’성격의 ‘pero’, (12f)의 ‘o’와 같은 접속사들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들 예문과는 달리 (12c), (12d), (12e)등은 여러 어휘조각들이 등장하는 구조인데 그중 Gallego(2005)는 Bianchi & Zamparelli(2004)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초점관련 요소(focus particle)로써 *no (sólo) ... sino (también)*의 투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데 이를 (12e)에 적용해 보면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4)에서 관찰되는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는 통사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이를 정의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Torner(2005)의 구 접미사나 Fábregas(2007a)의 접미사에 기초한 형용사의 등위구조로 부사의 등위구조를 분석한다는 점은 굳이 (12c)와 같은 비동등비교구문의 구조들의 선행연구들<sup>4)</sup>을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L2학습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등위구조를 이루는 어휘가 형태적 변화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통합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에 대해 L2학습자들에게 형태론적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3) Gallego(2005)에서는 TP를 설정하여 문장 등위구조를 소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사의 등위구조만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중립적 범주 표기인 XP로 하였다.

## 2. L2 학습자들을 위한 '-mente'형 부사 등위구조의 형태론적 유형 강제 삭제규칙에 의거한 분석

L2 학습자들은 특히 초-중급 학습자들은 (12a)의 '*lisa y llanamente*'에서 *llanamente* 만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부사로 인지하기가 매우 쉽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mente'로 끝나는 어휘는 부사 이외에는 다른 품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amente*나 *demente* 등의 일부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 스페인어 L2 학습자들은 '-mente'형 부사들을 입력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굳이 파생규칙을 학습을 통해 인지하지 않더라도 '-mente'형 부사에서 '-mente'가 파생접미사로 기능하는 것을 학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통해 관찰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mente'형 부사의 형태를 부사라는 범주로 동일시하게 된다. *lavaplatos*, *abrelatas*와 같이 동사와 그 내재논항으로 기능하는 요소들의 복합어와는 달리 개별 독립적 어휘가 아닌 형용사의 여성형과 파생접미사로 구성된 다소 학습자에게는 형태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 '-mente'형 부사는 초-중급 스페인어 L2 학습자들에게는 (3a)의 구조에 기초하여[Adv [Adj *llana*][N-head *mente*]]와 같은 분석적 학습이나 습득 보다는 형태론적 분석 없이 하나의 단어인 *limpiamente*로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L1 어휘 습득과 L2 어휘 습득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형용사 *normal*이 등위구조에 선행하여 '-mente'가 실현되지 않은 채 부사로 기능하는 것 보다 *normalmente*라는 형태가 부사로 더 자주 접하게 된다는 점, 또는 어근이나 남성형 형용사 형태만으로도 부사로 기능하는 *rápido*, *necesario* 등도 *rápidamente*, *necesariamente* 처럼 '-mente'가 실현되는 형태를 접한다면 학습자들은 '-mente'를 학습과정에서 접미사로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mente'형 부사로 파생이 가능한 형용사를 접하여 어휘적 지식을 늘려나갈 것이다. L2 학습자는 초급 수준의 경우 오히려 모든 '-mente'형 부사를 범주적으로 쉽게 인지할 것이며 *rápido*, *necesario* 같이 남성형 형용사의 형태

4) 동등비교구문은 Bresnan(1973), 비동등등 비교구문은 Donati(1996)를 참조.

로도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Richards(1985, 178-182)는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의 기저형태와 그 어휘의 파생 및 의미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든 ‘-mente’형 부사가 형용사 범주에서 파생된다는 어휘적 지식을 아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rápido, necesario* 같은 어휘를 안다는 것은 남성형 형용사로도 또 부사로도 기능한다는 즉 부사적 형용사(*adjetivo adverbial*, Luján(1981))인 것을 앞과 동시에 ‘-mente’형 부사로 파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해당 어휘 범주에 대한 어휘적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를 형용사 범주의 등위구조에 접미사가 공통적으로 참여한다는 Torner(2005)와 Fábregas(2007a)의 접근방식은 부사 범주의 등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의 등위구조가 아닌 형용사 등위구조의 부사화라는 매우 이론적으로도 복잡한 분석은 L2 학습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5) a. Juan habla alto y claro.
- b. Juan habla alta y claramente.
- c. \* Juan habla altamente y claramente.

L2 학습자는 (15b)처럼 스페인어의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의 특성과 관련된 사전 입력의 기회가 없었다면 (15c) 역시 정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15a)와 마찬가지로 (15c)는 2개의 부사가 등위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mente’형 부사를 다루지 않는 다른 연구에서 Fábregas(2007b, 167)는 다음과 같이 완전 어휘화 규칙을 제시하고 한 문장이 문법적이지 않은 경우는 그 통사적 자질 중 하나가 어휘항목에 의해 확인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 16) Exhaustive Lexicalisation Principle:  
Every syntactic feature must be lexicalised.

(Fábregas 2007b, 167)

---

5) (15)의 세 예문의 기대해석은 ‘후안은 큰소리로 명료하게 말한다.’가 될 것인데 이는

Fábregas(2007b, 167)는 통사적 자질을 어휘화 할 필요성이란 사용된 어휘 항목이 그와 관련된 음성적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16)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통사적 자질은 반드시 어휘화되어야 하며 그 어휘 항목은 음성적으로 영요소적 실현이라 할지라도 어휘화가 이루어져

(15a)에서 *alto*가 부사로 (15b)에서 ‘-mente’가 실현이 되지 않은 *alta*가 부사로 사용되어 공통적으로 ‘큰소리로(en voz alta)’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은 ‘후안은 큰소리로 그리고 명료하게 말한다.’라는 해석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한국인 학습자는 이러한 L1에 기반을 둔 해석적 의미의 등가성으로 (15c)를 정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15a)의 경우 역시 *alto*와 *claro*의 부사적 허용사라는 범주적 특징을 이미 인지한 상태라면 L2 학습자들은 이를 부사의 등위구조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i) *aprender español rápida y correctamente*

(i)의 기대해석은 ‘스페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기’일 것이며 추가적으로 ‘스페인어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기’정도가 허용 가능할 것이다. 이는 후자의 경우 명확하게 두 부사의 등위구조가 가능한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다. 만약 단어의 내부에 통사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면 한국인 L2 학습자들은 오히려 아래와 같은 L1의 구문에서 등위구조의 접속사나 어휘의 일부를 및 접속사의 일부를 비음성 실현 요소로 잘못 판단하게 이끄는 간섭현상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 (ii) a. 후안은 [큰소리로 그리고 명료하게] 말한다.  
b. 후안은 [큰소리로 [Ø] 명료하게] 말한다.
- (iii) a. 스페인어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기  
b. 스페인어를 [빠르-[Ø] [Ø]-고 정확하게] 배우기  
c. 스페인어를 [빠르-[Ø]-고 정확하게] 배우기

(ii.b)에서 접속사 ‘그리고’의 비음성 실현은 ‘큰소리로’가 형용사 파생부사가 아니므로 후행하는 ‘명료하게’와 동일범주 등위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ii.b)는 동일 유형 범주의 등위구조가 아니므로 ‘그리고’는 일종의 잉여적 접속사 탈락, 즉 ‘*hablar claro y en voz alta*’가 아닌 ‘*hablar claro en voz alta*’와 같은 유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15a,b)와는 다른 구조이다. 한편 (iii)과 같이 ‘-(하)게’형 부사들의 등위구조로 이루어진 구문에서는 (iii.b)의 분석은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접속사 ‘그리고’의 어휘 일부분을 삭제하는 ‘그리고’식의 분석이 아니라 ‘-고’가 등위접속어미로 실현된 구조로 보아야 한다. 즉, (iii.c)의 ‘빠르-[Ø]’의 형태로 분석하는 것은 스페인어의 접미사 ‘mente’의 비음성 실현을 [Ø]로 분석하여 ‘-게’의 탈락과 함께 ‘-고’가 등위접속어미로 실현된 구조로 보아야 한다. 등위구조를 구성함에 있어 L2와 L1과의 차이는 결국 L1의 번역과 관련된 간섭으로 인해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cf. Jiang(2000, 52)). 이러한 분석은 곧 이어지는 19)의 분석과 같이 (iii.c)를 ‘스페인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기’로 분석할 수 있는 기제로 볼 수 있다.

야 한다<sup>6)</sup>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Fábregas(2007b)의 제안에 비추어 볼 때 (15b)의 *alta*는 부사로 기능해야 하는 어휘범주이며 부사의 등위구조에 참여하는 부사로 어휘화 되어야 하므로 L2학습자들 역시 (15b)의 *alta*를 부사의 등위구조에 참여하는 부사로 판단해야하므로 ‘-mente’가 허용하는 형용사 등위구조에 참여하는 여성형 형용사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15b)의 *alta*가 부사로써 통사체계에 가독성(legibility)을 가지려면 통사적 투사상에서도 역시 부사의 등위구조로 투사가 되어야 목표어(target language)인 스페인어 L1화자나 L2화자 역시 접하면 층위(interface level)에서 동일한 통사적 판단을 할 것이므로 (15b)를 자연스러운 도출과정으로 얻은 표상으로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서 (15c)가 제외되고 (15b)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선행하는 부사의 ‘-mente’가 의무적 생략(obligatory ellipsis)이 아닌 일종의 형태론적 유형강제 삭제(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스페인어에서 이러한 형태론적 유형강제 삭제는 일부 형용사 남성형 - *uno, alguno, bueno, ninguno, primero, tercero* 등 - 의 단수형 어미 ‘-o’가 단수명사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나 형용사 *grande*가 단수형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 앞에서 어미가 탈락하는 것 등 특정한 형태적 환경(morphological condition)에서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mente’형 부사가 접속사 앞에서 ‘-mente’를 탈락시키는 점에서 (17)-(18)의 형용사 어미 ‘-o’탈락현상과 (19)의 ‘-mente’형 부사 ‘*directamente*’의 ‘-mente’ 탈락 현상은 이질적이지 않은 것이다.

- 17) a. ~~bueno~~ libro / buenos libros  
b. buena casa / buenas casas

- 18) a. ~~grande~~ hombre / grandes hombres  
b. ~~grande~~ mujer / grandes mujeres

6) Fábregas(2007b, 167)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the Exhaustive Lexicalisation Principle states that every syntactic feature must be lexicalised by a lexical item, even if this item is phonologically null.”

19) [[*Adv* *directamente*] o [*Adv* *indirectamente*]] (cf.(3b))

Jiang(2000, 50-54)에 따르면 L2 어휘습득은 먼저 학습자가 특정 어휘 항목에 형식적인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L1의 번역에 L2형태와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는 어휘 발전의 ‘형식단계(formal stage of lexical development)’를 갖는다고 한다. 이후 두 번째로 학습자는 L2 어휘항목에 자신의 L1 번역 등가의 의미적 통사적 자질을 추가하여 어휘 전이(Lexical Transfer)가 일어나는 ‘L1 lemma 중재단계(L1 lemma mediation stage)’를 거치고 끝으로 자신의 축적된 경험이 쌓여서 L2 단어와 관련된 의미적, 통사적 형태론적 정보가 해당 어휘항목과 결합되어 완전한 어휘능력의 발전(full development of lexical competence)을 갖는 L2 통합화 단계(L2 integration stage)를 갖는다고 한다.

Pounder(2006, 194)는 17-18세기 영어와 현대 영어에서 부사구의 등위구조에서 관찰되는 영어에서의 접미사 ‘-ly’의 결여 형태나 스페인어에서의 접미사 ‘-mente’가 결여된 부사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한 형태이므로 일종의 접미사 공백화(gapping)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안적으로 접미사 삭제로 보아도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한다. 본 연구는 (17)-(19)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L2 학습자들은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선행 ‘-mente’형 부사가 ‘-mente’를 삭제하는 것을 Jiang(2000)이 언급하는 세 번째 단계인 L2 통합화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sup>7)</sup> 초보 단계에서는 (1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다양한 등위구조의 분석은 L2 초기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는 Jiang(2000: 51)도 언급하듯이 L2-L1 연결이 활성화되거나 명시

7) 앞 각주 5)에서 살펴본 (ii)에서 ‘큰소리로’는 Jiang(2000)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L1 lemma 중재단계’의 수준에서 번역과 함께 준 등가해석을 가진다면 L2 통합화 단계에서는 L2와 L1이 평행하게 다음과 같이 형태론적 유형 강제 삭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 a. 후안은 [크게 그리고 명료하게] 말한다.

b. 후안은 [크~~게~~고 명료하게] 말한다.

즉, 스페인어에서는 ‘-mente’형 부사는 접속사 ‘y’의 출현 환경에서 선행하는 ‘-mente’형 부사의 ‘mente’가 삭제되었듯이 한국어에서는 등위접속어미 ‘-고’의 출현 환경에서 ‘-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L2 학습자들은 예측할 수 있다.

적인 문법 규칙을 배운다면 어느 정도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와 같은 표현능력이 가능하지만 의미적 문법적으로 ‘-mente’형 부사가 자신의 접미사를 실현하지 않고 여성형 형용사의 모습을 취하는 현상에 대해서 초기상태 L2 학습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의미적 문법적 정도가 심성어휘부(mental lexicon)의 외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어휘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일부 어휘지식으로써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V. 맺는말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서 ‘-mente’형 부사가 복수 출현하는 등위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출현하는 부사를 제외하고 선행하는 부사들의 접미사 ‘mente’가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 현상들에 대한 기존의 형태-통사적 분석들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mente’형 부사가 복수 출현하는 등위구조에 대해서는 부사의 복수 출현 등위구조로 보는 시각과 형용사의 복수 출현의 등위구조로 분석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부사의 파생에 참여하는 접미사 ‘-mente’가 생략(ellipsis)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며, 후자의 경우는 부사 파생에 관련되는 형태소 ‘-mente’를 기준으로 이 접미사가 갖는 어원적 특성인 여성 명사적 성격에 착안하여 여성 형용사들이 등위구조를 이룬다는 분석이다. 본 연구는 부사의 등위구조는 통사적으로 부사들 간의 등위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L2 학습자들이 ‘-mente’형 부사의 범주적 특성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형용사 여성형의 등위구조가 파생접미사와 통사적 구조를 이루는 현상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론적 유형 강제 삭제 규칙(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스페인어 명사가 특정 형용사와 연속체를 이루는 구조에서 의무적으로 형용사의 어미가 삭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스페인어 ‘-mente’형 부사의 등위구조에서는 선행 부사의 접미사의 비음성실현 현상이 접속사가 등장하는 조건하에서 삭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은 Jiang(2000)이 언급하는 L2 학습자의 어휘습득단계에서 마지막인 L2 통합과 단계에서 어휘능



- Bogotá: Instituto Caro y Cuervo.
- Fábregas, A.(2005), “La definición de la categoría gramatical en una morfología orientada sintácticamente,” Tesis doctoral,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Instituto Universitario de Investigación Ortega y Gasset.
- Fábregas, A. (2007a), “Adverbios en -mente y la estructura del adjetivo en español,” *ELUA. Estudios de Lingüística*, 21, pp. 103-124
- Fábregas, A. (2007b), “An Exhaustive Lexicalisation Account of Directional Complements,” *Nordlyd: Tromsø Working Papers on Language & Linguistics*, 34/2, pp. 165-199.
- Gacía-Page, M.(1991), “Breves apuntes sobre el adverbio en -mente,” *THESAURUS* Tomo XLVI, Núm. 2, pp. 183-224.
- Gallego, A.(2005) “Minimalist edge coordinations,” *ASJU*, 39-2, pp. 79-104.
- Gómez Torrego, L.(2007), *Gramática didáctica del español*, Madrid: SM.
- Hockett, C.(1971), *Curso de lingüística moderna, traducido adaptado al español por Emma Grefores y Jorge A. Suárez*, Buenos Aires, Eudeba.
- Jiang, N.(2000), “Lexical representation and development in a second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1, pp. 47-77.
- Karlsson, K.E.(1981), *Syntax and affixation. The evolution of MENTE in Latin and romance*, Tübinga, Max Niemeyer Verlag.
- Kovacci, O.(1999), “El Adverio,”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pp. 705-786.
- Lapointe, S.(1978), “A theory of grammatical agreement,” Ph.D. dissertation,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Luján, M.(1981), “The Spanish copulas as aspectual indicators,” *Lingua*, 54, pp. 165-209.
- Migliorini, B.(1952), “Coppie avverbiale aplogie in italiano,” Gunnar Ahlbor et al.(ed.), *Melanges de philologie romane offerts a M.K. Michaelsson*, Goteborg: Bergendahl, pp. 375-381.
- Nespor, M.(1985), “The phonological word in Italian,” Harry van der Hulst & Norval Smith(eds.), *Advances in Nonlinear Phonology*, Dordrecht: Foris, pp. 193-204.
- Pounder, A.(2006), “Adverb-marking patterns in Earlier Modern English



# A morpho-syntactic analysis of the coordinate structure of Spanish adverbs ending in *-mente* for L2 learners

**Jae-yong Kwa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wak, Jae-yong (2013), A morpho-syntactic analysis of the coordinate structure of Spanish adverbs ending in *-mente* for L2 learners.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the Spanish adverbial suffix '*-mente*' can have phonetically null realizations in all the used lexical adverbs ending in *-mente* in the coordinate structure except the last. In this study we will defend an analysis that this kind of the null realization is a consequence of 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 in the L2 Integration Stage(cf. Jiang 2000). A cross-linguistic evidence of the null realization of adverbial suffix in the coordination can be found in Romance languages and early Modern and current English(cf. Pounder 2006). We can observe that the coordination like '*alta y correctamente*' is not a coordination of a adjective *alta* and a adverb *correctamente*. We argue that the construction '*alta y correctamente*' should be analyzed as a coordination of two adverbs *altamente* and *correctamente*, to which the 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 is applied like [*altamente y correctamente*].

**Key words** coordination, phonetically null realizations, suffix, adverbs ending in '*-mente*', Morphological Coercive Deletion Rule